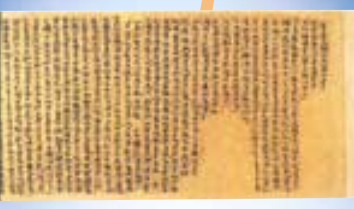


해초의 왕오천축국전 정수일 역주 | 학교재 펴냄 | 4만8천원



<왕오천축국전> 필사본.



<왕오천축국전>이 발간된 동향석굴 전경.

해초 한민족 최초의 세계인

파리 국립박물관 원본 소장 이슬람학자 '간수' 정수일 씨 국내 처음으로 역주서 발간

1908년 3월 중국 둔황석굴에서 프랑스 탐험가이자 동양학자인 펠리오는 제목도, 저자명도 모두 떨어져 나가고 없는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한다. 이 책이 바로 신라의 고승 해초가 723년부터 4년간 인도와 페르시아, 중앙아시아를 둘러 보고 쓴 여행기 <왕오천축국전>이다. 발견될 당시의 분량은 227행에 한 행이 30자 내외로 총 6천여 자 남짓이었고, 크기는 세로 28.5cm, 가로 약 42cm인 종이 아홉장을 이어 붙여 358cm나 되었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우리 책이자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관한 유일한 기록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아 큰 주목을 끌었다.

집 떠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고향이라는 인지상정의 대명제가 해초 스님에게도 예외는 아닌 듯 하다. 필사본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에는 해초 스님의 여정과 함께 고향을 그리는 마음도 구구 절절 담겨 있

다. 해초 스님은 '내 나라는 하늘이 북쪽에 있고 남의 나라는 땅을 서쪽에 있네/ 일남에는 거리가 멀어 없으니 누가 소식 전하러 계림으로 날아가리'라는 망향의 시를 읊기도 했다. 하지만 필사본의 저자가 여정길에도 신라를 그리워하는 한국인이었음에도 이 책은 우리에게 멀리 있었다. 원본이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었고, 그동안 나온 몇몇의 논문과

읽기 편하게 재편집해 놓았다. 정씨는 이번 역주서에서 해초 스님의 생애, 여행기의 발전 과정과 내용, 서역 기행의 노정과 문명사적 의미를 싣고 원문을 내용에 따라 지역 단위로 40개를 구분해 번역본, 원문, 주석을 순서대로 배치했다. 책 뒷 부분에는 해초 연표와 찾아보기를 넣었고 <왕오천축국전>의 정체를 파악하는 근거가 된 펠리의 <일체경음

로 잡혀나간 분량도 처음으로 추산했다. 해초 스님이 여행한 경로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다. 하지만 정씨는 이번 역주서에서 해초 스님이 중국 광둥을 출발해 당시 아랍 제국의 중앙아시아 관할지이자 동방으로 가는 통로였던 니사푸르(현 이란 동북부의 마슈하드)까지 순례했다고 밝히고 있다. 교통이 발달한 현대에도 결코 쉽지 않은 순례여행을 다녀온 모험정신 때문이일까, 해초 스님에 대해 정씨가 "해초는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아랍제국을 밟은 사람이자 아랍을 뜻하는 '대식국(大食國)'이란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인이다"고 극찬한 것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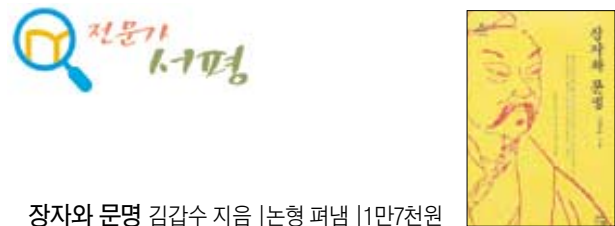
책을 펼치면 역주서답게 내용이 촘촘하게 펼쳐져 있어 읽기에 다소 힘들어 느낌이 든다. 하지만 첫 장에 나와 있는 '해초의 서역기행 노정도'를 오려 옆에 두고 책에 있는 여정을 따라 읽어 나가다보면 여행기 특유의 건문 체함에 대한 훌륭한 재미를 맛보게 된다. 4년간 가보지 않은 대장정을 떠났던 해초 스님의 구도와 도전 정신에 비하면 450페이지 분량의 책을 편안히 읽어서 탐독하는 듯 증상의 인내 는 미약하게만 여겨진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해초는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아랍제국을 밟은 사람이자"

아랍을 뜻하는 '대식국(大食國)'이란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이다."

의>중 필사본인 <해초왕오천축국전> 부분을 발췌해 실었다. 특히 정씨는 이번 역주서에서 <일체경음의>에 주석된 어휘와 현존하는 <왕오천축국전>에 포함된 어휘 중 서로 일치하는 어휘수와 나오는 순서 등을 꼼꼼히 비교했다. 그리고 현존 <왕오천축국전>은 원래 세 권이었던 원본의 축약본이라고 결론 내린다. 또 <일체경음의>가 고된 주석 어휘의 빈도를 근거로 현존 필사본인 <왕오천축국전>에서 앞 뒤



장자와 문명 김갑수 지음 | 논형 펴냄 | 1만7천원

중국에 관한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공자와 맹자, 장자 등 중국철학자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특히 장자는 현실도피적인 인상이 강해 호기심이 가는 인물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장자와 문명>은 장자의 사상을 철저하게 사회,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장자를 여러 가지 현실 문제를 외면한 현실도피주의자, 일신의 안일만을 추구한 극단적 개인주의자 혹은 관념적 유희를 즐긴 사람 정도로 자리매김하는 일반적인 관점들을 철저히 배격한다.

저자는 장자를 전국시대라는 역사 현장 속의 생존 인물로 설정해 놓고 그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진행된 사회경제적 지각변동과 함께 제자백가들이 속출해 치열하게 논쟁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장자의 고민을 읽어내고 있다. 또한 무위와 유위라는 분석틀을 자연관, 인간관 사

현실도피주의 장자 뒤집어 읽기

회사상 등에 일관되게 적용하면서 장자철학의 사상적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자연의 동이로서의 무위가 인간과 문명의 대척점에 놓여 있음을 계속 강조하면서 무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데 성공하였다. 장자의 무위는 사변적 유희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구체적 삶의 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 그리고 장자에게 있어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적 요청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위는 개인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서도 중요한 열쇠가 된다.

저자는 현실적 요청으로서의 무위를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하면서 장자에게 혁명적 사회사상가의 옷을 입힌다. 다소 무겁게 생각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별 막힘 없이 술술 읽어내려가게 하는 추진력이 이 책에서는 느껴진다. 그것은 바로 문장과 문장 그리고 각각의 장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며, 그리고 전체가 팽팽한 긴장을 유지한 채 흐트러짐 없이 일관된 논리로 한 지점을 향해 나가는 글의 탄탄한 짜임새에 기인하고 있다. 기존의 장자를 뛰어넘는 신선한 시각이 독서의 구미를 당기게 만든다.

양희섭 (KBS 외주제작국 부장)

티베트

패키지 상품

하늘호수(남초)로 떠나는 티벳 8일
▶ 5/21.6/18.7/16.7/20.7/27.7/30
▶ 189만원

티벳/내팔 문화탐방 11일
▶ 5/27.6/3.6/17.7/15
▶ 260만원

佛敎 성지순례

카일라쉬(수미산) 대탐방 24일/345만원

단체 배낭 상품

하늘호수(남초)로 떠나는 티벳 8일
▶ 5/21.6/18.7/16.7/20.7/27.7/30 ▶ 143만원

환상의 우정공로를 횡단하는 티벳/내팔 12일
▶ 5/21.6/18.7/23.7/30 ▶ 173만원

티벳/내팔/인도 23일
▶ 6/20.7/4.7/29 ▶ 239만원

티벳 전문 해초여행사(주) (02)733-3900 / www.hyecho.com

불교꽃꽂이 예작집

* 저자 : 정진희 (동국대학교 불교정통꽃꽂이 강사)
* 내용 : • 상단꽃꽂이 • 예작편(例作)
• 영단꽃꽂이 • 禪(zen) 꽃꽂이
• 다화(茶化)

이 책은 누구든지 보고 따라하기 쉽게 제작되었으며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불교정통꽃꽂이반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의처 : 011-730-6845
011-280-0537
계좌번호 : 우리은행 136-07-038816
예금주 : 정경란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2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2. 교육장소	동산 법당(동산불교회관)
3. 개강일시	2004년 5월 6일(목요일) 오후 7시
4. 교과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 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살,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 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 지원자격	제한없음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중국 자격증 및 학위 취득 연수

연수목적
소정의 연수 과정을 마치면 침구계(3년), 중의계(5년)결업과 침구사, 중의사 자격증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 생업의 소득증대와 해외이민시 병, 의원의 설립과 유학시(편입), 포교사파송시(의료포교) W.T.O 개방에 대비를 위한 연수입니다.

연수학교
중국 요녕성 중의연구원 (심양시)

연수기간
2004년 5월 25일 - 5월 29일 (4박 5일)

연수과목
중의침구학, 중국특수침법, 비만침법, 미용침법, 피부관리침법, 침구진단, 경락경혈, 단혈치료

연수설명회 및 신청
2004년 5월 9일(일) 오후 2시~5시

중국 연수 전문 중국 문화원
02)456-4248/016-221-4516
후원 : (주)관광포럼여행사

현정스님의念佛禪 그리움의 노래

백남을 하루같이 부처님이 그리워 「그리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빈도의 佛心을 담은 그 노래에 많은 불자들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열성을 보내고 있는 불자들에게 부처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다시한번 「그리움의 노래」를 바칩니다.

아직까지 그리움의 노래를 만나지 못한 불자들에게 최고의 법보시를 부탁 드립니다.

테이프 전면에 「그리움의 노래」후면에 「선근인연가」 「부모은중가」 「불전참회가」 「회향산회가」 등 주옥같은 법문이 엄불송으로 녹음되어 테이프+책=5천원에 전화주문 받고 있습니다.

● 입금온라인 : 우체국 501023-01-000379 (금산정사) [2개이상 우송]

불교의 우리말하 실천도량 **금산정사**
061-843-8822